



2022년 / 6월 2주차

연구원 소식

동아리 지원사업 선정 결과

지난 5월 31일 열린 운영위원회를 통해 동아리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동아리 활동 주체인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지원금 신청액	자부담	총사업비	지원금 결정액
우리말 나들이	1,000,000	400,000	1,400,000	1,000,000
근대 역사문화탐방	1,000,000	600,000	1,600,000	800,000
종교 문화유산 탐방	600,000	600,000	1,200,000	300,000
길 끝에서 길을 찾다 - 대청호 둘레길 걷기	1,200,000	1,200,000	2,400,000	600,000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대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할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독도 폭격 사건 - 1948. 6. 8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던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삼아 공중 폭격 연습을 실시하곤 했다. 영토의 주인인 대한민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였다.

1947년 4월 16일 어민들에게 처음 목격된 이래(고 비행물체가 어느 나라에서 소속이고 어디서 날아왔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채) 결국 일년여가 지난 1948년 6월 8일 사단이 나고 만다.

강원도와 울릉도에서 온 고깃배들이 독도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독도로 접근을 하더니, 갑자기 독도 위에 폭탄을 투하하였다. 뒤이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던 선박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며 기관총 사격을 퍼부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폭격이었다. 배 위에 있던 이들은 바다로 뛰어 들고, 독도 위에서 휴식을 취하던 어민들은 동굴로 급히 몸을 피했지만 이곳 저곳에서 어민들이 무참히 죽어갔다. 독도 상공을 선회하던 갱이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독도 앞 바다는 붉은 빛으로 변하고 말았다.

미군 당국은 처음에는 미군기에 의한 폭격을 부인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헌의회에서 미군의 독도 폭격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고 폭격 당시 어민들이 미공군의 표식인 "원과별"을 봤다는 증언이 드러나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흐르게 된다. 이에 미국은 미 공군 93 폭격비행대대가 벌인 독도 폭격 연습으로 임시 배치명령을 받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엄연히 한국의 땅인 독도에 어떤 경로를 통해 폭격 연습을 하게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나 향후 폭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추산에 따르면 14척의 배가 침몰하고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되었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은 저마다 달라서 사망자 수가 수백명 선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미 군정청은 사건에 대한 보상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짤막하게 코멘트 한 후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해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다수가 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미군 측에 보상을 받은 이들도 돼지 한 마리 값에 불과해 그 돈으로 위령제를 모시고 나니 남은 것이 없었다는 증언이다.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1952년 9월 15일, 22일, 24일에도 폭격이 벌어졌고 우리 정부는 한국전쟁의 와중이던 1952년 11월 10일에서야 독도폭격사건의 자료제공과 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미국에 보냈다. 그로부터 20여일 후인 12월 4일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24일 미 극동군사령부는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그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53년 1월20일 미 육군 소장 토마스 W. 헤렌 명의로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통고를 우리 정부 앞으로 해왔다.

최종적으로 독도가 미군 공군기의 폭격에서 해방된 날은 1953년 3월 19일이었다.

(대구일보 2015. 02. 06 1948년 미공군 폭격연습 표적 "어민 150여명 무고한 희생" 기사참조)